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. 1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러시아, 민간여객기도 테러 위협 시 격추토록 법령 개정 추진
 - 1.12 러시아는 민간여객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가 불법으로 국경을 침범하여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고군사결정기구인 국방관리센터의 결정으로 격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

미주

- 美 국무장관, '對중동 3대 원칙' 언급
 - 1.13 중동을 순방한 「폼페이오」 국무장관은 “ISIS 격퇴, 反이란, 지역 안정”이 對중동 3대 원칙이며, 헤즈볼라·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·예멘 후티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은 세계 최대 테러지원국가라고 강조
- 브라질, 범죄억제 효과 논란 속 총기규제 완화
 - 1.15 「보우소나루」 브라질 대통령은 ‘방어권 보장시 치안이 안정될 것’이라며 총기규제를 완화하는 대통령령*에 서명, 치안전문가들은 폭력 사태가 확대될 것을 우려

아·태평양

- 인도네시아, 반부패위원장 집에서 사제폭발물 발견
 - 1.9 인니 경찰은 「라하르조」 반부패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집에서 사제폭발물이 발견되고, 화염병이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

○ 태국, 학교 총격테러 용의자 2명 사살

- 1.12 태국은 지난 10일 발생한 총격테러* 용의자가 숨어있다는 제보를 받고 포위작전 중 2명을 사살했으며, 바리산 민족혁명전선(BRN)**의 소행으로 추정

* 1.10 태국남부 빠따니지역 학교에서 무장괴한 8명의 총격으로 경비원 4명 사망

** '63년 태국 남부지역에 말레이系 이슬람 국가건설을 목표로 결성

○ 태국, 대낮 초소근무 경찰 피살 등 정부-반군 충돌 격화

- 1.13 태국 남부 빠타니州에서 이슬람 분리독립 반군 추정 괴한들이 경찰서를 급습, 초소근무 경찰을 총격 살해하는 등 정부당국과 이슬람 반군 간 충돌 심화

* 최근 태국 최남단 빠타니·알라州 등에서 이슬람 반군의 지속적인 테러에 군·경이 용의자 사살 등 진압작전을 펼치자, 보복성 테러로 경찰관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

중 동

○ 美·터키, 시리아 북부 안전지대 구축 협상 지속키로 합의

- 1.15 「트럼프」 대통령이 제시한 시리아 북부 20마일(약 32Km) 폭의 안전지대 설치 방안에 대하여 「에르도안」 터키 대통령은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터키 의회에서 언급

* 1.14 양국 정상은 전화통화를 통해 안전지대 및 쿠르드족 문제 등을 논의

아 프 리 카

○ 나이지리아, 보코하람 테러폭력 우려로 3만 명 피난

- 1.10 「에드워드 갈론」 UN 인도주의 조정관은 최근 나이지리아 북부 바가지역 주민 3만명이 보코하람의 폭력을 피해 200Km 거리의 보르노州 마이두구리로 몰려들고 있다고 발표

* '18.12월부터 보코하람이 군과 충돌을 벌이면서 대규모 이주사태 촉발

알제리 가스시설 인질테러

- '13.1.16 알제리 일리지주 '인 아메나스' 천연가스 생산 시설을 AQIM*의 분파조직인 '북면여단' 32명이 기습 점거해 외국인 근로자 등을 인질로 잡고 군·경과 대치



* 알-카에다 마그렙지부(Al-Qaida in the Islamic Maghreb) : '98년 북아프리카에서 서방 세력 축출 및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

- AQIM 분파조직 '북면여단'은 프랑스가 말리 북부에 장악한 이슬람 반군에 대한 공습을 개시한 것과 관련, 프랑스에 영공을 열어준 알제리 정부에 대한 보복으로 인질테러를 감행

- 한편, '90년대부터 대규모 내전을 겪으며 무장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'무타협 원칙'을 고수하던 알제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의사를 거부
- 1.19 자국의 특수부대를 동원해 무리한 인질구출 작전을 전개한 결과 다국적 인질 48명 포함 80명이 사망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

* 알제리군이 인질범과 협상을 거부하고 사전 통보 없이 공격을 감행한 것에 비판